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감수성 강조 영문 명칭으로 변경

‘the Disabled’ → ‘Persons with Disabilities’ 변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관 영문 명칭을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에서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의미하는 ‘the Disabled’는 장애를 강조하고 집합

적 성격인 반면,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며 개별적 권리를 중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인권고등판무관 장

애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 국제 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공단은 “인권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방침과 국제적 트렌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영문 명칭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영문 명칭 변경을 통

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에 공단의 역량을 집중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공단이 장애인의 인권 감수성이 높은 포용적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장애인 고용이라는 공공성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혁신하고 도전에 국제적으로 신뢰 받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취업 위해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찾다”

### 광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동부권 특수교육대상 학생 이미지 메이킹 교육  
광양 백운고 시작 3개월 동안 각 10회 진행기로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로직업거점센터로 전남 동부권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취업 지원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미지 메이킹 교육 프로그램’은 전남 동부권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학년을 우선순위로 7학급을 선

정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해 ‘나를 알기, 나에게 어울리는 이미지 만들기’, ‘실전 모의 면접체험하기’, ‘자기소개 스피치’ 등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1일 광양 백운고를 시작으로 7학급에 이미지 메이킹 강사를 파견하여 3개월 동안 각 10회기로 진행된다. 프

로그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위주의 취업을 앞둔 고학년 특수교육대상자이며, 학생들의 취업 의욕과 함께 역량을 강화하며 취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지 메이킹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수교사는 “장애학생들이 자신을 알고 직무에 갖추어야 할 이미지 또는 첫인상을 찾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면접에 대비한 머리 손질과 복장 등 연출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고 하였다.

광양교육지원청 조정자 교육장은 “장애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자신을 가꾸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면접 대응 전략을 익혀



자신의 취업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되길 바란다

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휠체어 타고 관광지 간 원희룡 지사 “장애인시설 대폭 확대” 약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오전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인 제주올레 8코스와 서귀포 치유의 숲을 잇따라 방문,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을 둘러봤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초 공식 행사 중 다리부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오전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인 제주올레 8코스와 서귀포 치유의 숲을 잇따라 방문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초 공식 행사 중 다리부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다.

이날 휠체어를 탄 원 지사의 이 곳 방문은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

아 동반 관광객 등 관광약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휠체어를 타며 직접 경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현장점검에는 송창현 관광약자 접근성안내센터 사무국장, 관광약자 여행 서비스 제공업체(사회적 기업) 대표 등이 함께 참여했다.

원 지사는 송창현 사무국장으로부터

터 “올레 6코스와 8코스 등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올레코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휠체어를 대여해주는 관광지가 아직은 적다”는 말을 듣고 “현재 제주 주요 관광지에는 휠체어 대여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른 관광지로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대평포구로 이어진 올레 8코스를 휠체어로 이동하며 “장애인 이용·편의시설 등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행정과 사회인식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워 장애인시설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해 ‘스스로 해결단’ 무장애여행 분야 지역주민들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노고록(편안하다는 제주어) 숲길을 함께 이동하면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스스로 해결단’은 지역주민 지자체, ICT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선·해결해 나가는 실행조직이다. 지난 3월까지 32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찾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8월1일 9월 30일까지 ‘2019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장애인서비스를 운영하는 전국 100여 개 도서관 모두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2014년부터 장애인을 위

해 제공한 서비스 운영사례다. 10월15일 최종 수상작이 발표된다. 6개 기관에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장애인복지, 아직 도움의 손길 부족”

광양동백로타리클럽 이선진, 사랑나눔복지재단에 600만원 전달

광양동백로타리클럽 이선진 회장은 지난 12일 전달식을 갖고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서경석)에 성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평소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부자가 광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박문섭)에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매월 50만원씩 1년간 총 600만원을 기부하게 되었다.

전달식에 참석한 광양동백로타리클럽 이선진 회장은 “장애인복지가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큰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김점현 사무국장은 “개인이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기부를 결정해 주신 동백로타리클럽 이선진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보내 주신 성금을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지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